제4차 JTS국제워크캠프 열려

새벽 4시 반 기상, 드디어 첫 삽을 뜨는 날. 둥게스와리 마을로 일을 하러가는 날이다. 지난 이틀간에 걸쳐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입제식과 강의, 실습교육 등을 통해 사전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현지 마을 리더들을 따라 연장과 주먹밥을 들고 떠나는 워크캠프팀들. 샤워장을 짓고 우물을 보수하고 담장을 쌓아올려야 한다.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며,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쌓아올리고 미장까지 해야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 해보는 것들이다. 목표한 공사들을 다 마칠 수 있을까.

대학생 49명 印마을 지원

◇JTS 국제워크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인도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마을에서 '마을 개발사업' 중에 틈을 내 물가촉천민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스스로에게 놀란다. 잘 할 수 있을까 하던 의심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해낸 성과들을 보고 자신감으로 바뀐다. 그들이 하는 일이 벽돌을 쌓아올리는 일이지만 그것은 벽돌이 아니라 희망이 쌓아지는 것이다. 서로의 불편함은 조금씩 참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사랑하는 과정. 워크캠프는 참가자들에게 '관계'의 문제를 일깨워주었다.

하루의 마감인 '마음나누기' 시간. 각 조별로 각자가 그날 하루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털어놓는다. 그들은 함께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JTS 해외사업장이 위치한 인도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일대에서는 한국인 청년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제4차 JTS 국제워크캠프가 열렸다. 서류와 면접, 사전교육을 마치고 선발된 49명의 대학생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2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 15박 16일 일정의 워크캠프 행사에 참가했다.

유치원 교육 · 아이들 목욕 · 이발 봉사
문화공연 관람 · 보드가야 대탑 참배

1999년부터 시작된 JTS의 국제워크캠프는 매년 7월 국내의 청년대학생들을 모집, 인도 현지 마을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주로 육체적 노동으로 공동시설을 짓고 고치는 일을 진행한다. 각 마을에 설치된 캠프 안에서는 조원들끼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마을유치원에서 수업을 하거나 동네아이들을 모아 목욕이나 이발을 해주고, 마을 리더들을 통해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하기도 한다.

올해 JTS 국제워크캠프에서는 둥게스와리 일대 5개 마을의 개발사업을 지원했다. 현지 마을 리더들은 워크캠프 전에 인도 JTS를 통해 각자의 마을에 필요한 공동작업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로 지면과 비슷한 높이의 우물 담을 보수하는 작업과 마을 유치원들의 담장과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울타리 쌓기, 우물가에서 옷을 입은 채 샤워를 하는 부녀자들을 위해 필요한 샤워장 시설의 신축 등이 진행됐다.

JTS에서는 17명의 자원봉사자가 캠프진행요원으로 활동하고 6명의 마을리더들이 각 캠프팀을 지도하는 속에 각 조별로 예정된 공사들을 마쳤으며, 마지막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드가야 대탑을 참배하는 것을 끝으로 캠프를 해산했다.

JTS는 7월의 자체 워크캠프 이외에도 IWO(국제워크캠프기구)의 상설캠프를 1, 2월에 설치하고 있으며 KOPION(세계청년봉사단)을 통해 6개월 장기 자원봉사자들도 받고 있다.

인도 보드가야= 김동훈 통신원

◇캄보디아 스님들이 프놈펜 왕궁내에 만든 모형 '앙코르 와트' 사원을 쳐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왕궁에 앙코르와트 사원 모형

1113년에서 1150년 사이 약 37년만에 완공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Angkor Wat).

가로 1.3 km 세로 1.5 km의 거대한 해자(垓子, 성 밖을 둘러 파서 못으로 만든 곳)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사원이다. 해자의 폭은 200m, 그 길이는 5.5km 나 될 정도로 앙코르와트의 건축 양식은 세계의 불가사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앙코르 와트가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 왕궁내에 모형으로 세워져 불자들을 맞고 있다.

전쟁기간 중 200만명이나 살해된 '킬링 필드'의 땅 캄보디아에 최근 6개월간, 29.2%의 관광객이 늘어날 정도로 불교국가의 명성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907년 '영국 · 아일랜드 불교협회'가 창립된 95년만에 앤공주가 영국 왕실을 대표해 처음으로 불교사원을 공식 방문했다.

앤공주, 英 왕실 최초 불교사원 방문

부처님께 꽃 공양, "서구인들 불교에 관심가져 기쁘다"

영국의 앤(Anne) 공주가 왕실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영국 불교계를 방문했다.

앤 공주는 10일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50주년을 불자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런던불교사원을 방문. 런던불교사원의 주지이자 영국불교협회 회장인 메다가마 바지라그나나 테로(Dr. Medagama Vajiragnana Thero) 스님과 신도들의 환영을 받았다.

소녀 불자들의 염불 속에 사원 건물에 들어선 앤 공주는 꽃을 받아들고, 대웅전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렸다. 각국에서 온 25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불자들은 앤 공주 앞에서 전통 불교무용을 선보였다.

이날 앤 공주는 자신이 '어린이 구호재단(Save the Children Fund)'의 후원자로서 태국, 몽고, 티베트 등 여러 불교국가들을 자주 방문해,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국에서 불자들이 평화롭게 살아서 행복하며, 많은 서구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영국 불교도들이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명상을 가르쳐 범죄를 짓지 않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앤 공주는 새로 건립중인 불교회관의 주춧돌과 현판식을 제막하며 영국 불교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국 불교는 1907년 '영국-아일랜드 불교협회', 1924년 '영국 선불교협회', 1926년 영국 마하보디협회의 설립에 이어 1928년 영국불교사원이 창건되면서 9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32. 원효, 의상에 세가지 의문 풀다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승려상이며, 학자, 화엄종의 개조, 신라의 삼국통일이후 피폐해진 인간관을 화엄의 실천으로 융화시킨 인물이며 교육자였던 의상(義相, 625-702)스님은 702년, 78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의상의 문하에는 3천명에 이르는 제자들이 있었으며 10대덕(十大德, 悟眞, 智通, 表訓, 眞定, 眞藏, 道融, 良圓, 相源, 能仁, 義寂)이라고 불리우는 열명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계승해 해동 화엄종의 실천적인 전통을 이어나갔다. 특히 부석사계 화엄종에서는 구산선문을 여는 대낭혜 무염선사와 지증도헌선사 등의 대선사들을 배출함으로써 선으로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점은 선과 화엄의 융합을 통해서 화엄의 교리를 종교적 실천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의상과 원효는 동시대를 살면서 수행과 학문의 길을 함께 걸어간 스님들이며 심지어는 당시 불교문화의 발신지였던 당나라에 함께 유학을 떠나려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우리 불교사의 공간에서 화엄사상을 말하려면 먼저 의상과 원효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해동화엄의 종조라고 불리우는 의상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대 살면서 수행 · 학문 함께
"원효, 의상 만나 의문 해결"
균여계통 화엄학승 의상 존중

두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의상은 철두철미하게 대학승으로서, 불교승가의 사표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갔지만 원효는 입당(入唐)중의 깨달음으로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오직 알음알이이다. 마음밖에 존재하는 것이 없으니 나는 오랑캐들에게 특별한 배움을 구하고 싶지 않으며 당나라에도 가지 않겠다(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 我不入唐)"라고 선언한 뒤 매우 독창적인 저술과 준엄한 수행으로 대중앞에 나선 인물이다. 즉 우리는 두 스님의 인간상에서 체제안의 질서와 체내 밖의 무애를 완성한 두 라이벌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라이벌들에게서는 서로 불화를 일으키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서로를 일깨우면서 한 시대를 드높은 불교정신으로 장엄하는 고승들의 잔잔하면서도 장려한삶이 느껴진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의상은 소백산맥의 봉황산 기슭의 부석사에 주석하면서 화엄경을 강의하는 등 해동 화엄종의 기초를 닦는다. 인품과 학덕으로 빛나는 그의 주변에는 신분과 계층을 넘어서 신라의 수많은 영재들이 모여들었다. 의상은 화엄의 큰 가르침을 펴는 일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화엄 10찰이라고 불리우는 해동 화엄종의 본산들이 전국의 명산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최치원은 〈법장화상전〉에서 "해동 화엄대학은 10산에 있다(海東華嚴大學之所 有十山焉)"고 분명히 기록한다.

당시 의상은 젊은 날의 도반이었던 원효스님에게 불교인식론의 진수를 해명해 주기도 한다. 원효가 의상을 만나 세가지 의문을 풀었다는 기사를 〈법계도기총수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문헌은 원래 고려대장경의 보유판으로 판각되어 해인사에 전해져오다가 최근에야 학자들의 조명을 받고 있어 완벽한 한글번역은 없다. "〈대기(大記)〉에 이르기를 '고사(古辭)'에 원효법사가 의상법사를 만나 의심을 푼 것이 3가지이다. 그 하나는 시각(始覺)이 본각(本覺)과 같아 범(凡)도 되고 성(聖)도 된다는 뜻이요, 둘은 습과해종종심(習過海種種心)의 뜻이요, 셋은 이능전(能詮)과 소전(所詮)이 모두 언증지처(言中之處)에 있다는 것이다. 원효법사의 뜻은 곧 하교(下敎) 중에 법체가 실유한다는 실유법체(實有法體)라고 생각했으나 이 글을 보고 곧 능전소전이 모두 언중에 있으나 법체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무법실체(無法實體)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이 기사를 싣고있는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隨錄)〉은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 주석과 강의를 집대성하고 있는 문헌이며 저자는 불명이다. 다만 고려 균여(均如)의 〈지귀장원통초〉가 인용되어 있어서 편찬연대의 하한은 균여이후이며, 균여계통의 화엄학승들에 의해서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로서는 균여계통의 학승들 또한 의상이 원효의 의문을 풀어주는 한 수 높은 교사로 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경학회 회주

육 六 임 壬 래 來 정 情 비 秘 법 法

◎ 혁 신 판 (全12卷) 활인전문천역자용
1,500,000원 (휴대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1,300,000원 (좌정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350,000원 (기존판 : 설명비디오 3개)

■ 활인천역자(스님 · 오행가 · 신명제자)의 필수서로 이미 검증 되어 있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속사정을 시간별로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비서 입니다.
먼저 할 말은 앞면에, 묻는 일의 대답은 뒷면에 시간별로 써져 있습니다.
■ 귀신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의 침범을 정확히 먼저 밝힌 후 이를 제거 · 해소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천도 · 시식 · 부적 · 굿의 효과 여부를 미리 알고 시행할 수 있어 후련하고 명쾌해 집니다. 또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바인더 처리」하여 매월 매일 것을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보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구입하신 후 전화하십시오. 전국어디라도 책 도착 날로 부터 3일안에 찾아뵙고 자세히 그 활용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인천역(신도단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 효 사 -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원
육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순서 : 기본편 입문편 전문편 활용편 형이상편 비방편 상담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월장편의 순(順)입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비디오강의 1,2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 총 28개)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실시하고있는 3개월 과정의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 되어있어 육임 공부가 독학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육임학당효사숙 입강안내 1,5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오는 9월 6일(금)부터 제 3기 강의가 시작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순서에 들게 되십니다

※ 「한장 한눈으로 판단하는 사주법」과「한장 한눈으로 짓는 작명 감정법」을 코팅처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세력이 필요없이 평생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개 100,000원입니다. 신청하십시오.

▶ 주문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직접배달-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